

땅끝으로 마실가세~

해남 체류형 관광 '땅끝마실' 인기
6개월간 110개팀 찾아
이달말부터 최대 50% 할인
장기체류형 상품 추가 운영도

해남군 생활관광 프로그램 '땅끝마실' 이 대표적 체류형 관광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땅끝마실은 해남군이 인증한 숙박업체에서 1박 2일 체류하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생활관광 프로그램이다. 숙박 체험 조식이 결합한 관광상품으로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문체부 생활관광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1박 2일 외에도 3박 4일, 6박 7일의 장기체류형 상품도 추가 운영 중이다. 현재 땅끝마실은 지역 숙박업체 등 19개소가 참여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업소별로 다도체험, 분재체험, 트레킹, 농산물 수확 등 특색있는 체험과 함께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조식을 제공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고추장 담그기, 고구마 빵만들기, 도자기 체험 등 특별체험 행사도 다채로움을 더한다. 올해 약 110팀 320명이 땅끝마실을 체험하는 등 지역민과 소통하며 땅끝 해남의 잠재력을 느끼



▲ 한옥민박서 진행하는 와인체험.

◀서각체험 프로그램

는 여행을 즐겼다. 군에서는 피크닉 세트 대여, 전용 위생용품 증정, 마을 잔치와 함께하는 땅끝마실 특별체험, 땅끝마실 전용 스탬프투어 등도 마련해 여행에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9월 말부터는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남도 속

박람회이벤트와 연계해 최대 50%까지 저렴한 금액으로 땅끝마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땅끝마실은 해남문화관광홈페이지 '땅끝마실'에서 예약신청이 가능하며, 해남군문화관광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불합리한 규제 신고하세요” 완도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완도군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군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자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사진) 신고센터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중심 활동의 일환이다. 군은 상반기 ▲농약 판매업자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조경량 비행 장치 안정성 인증 검사 기관 확대 등 2건의 과제를 중앙부처와 중소기업육성부서, 규제 개혁 신문고 등에 건의한 결과 중앙부처로부터 건의안이 수용되는 결과를 냈다. 아울러 또다른 건의사안 2건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개정이 검토 중이다. 신고센터 외에도 군은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 ▲도서관 여객선 전산 발권 제한 불편 사항 개선 ▲소수력 발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자 선임 요건 완화 등이 중앙부처에 수용되는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에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 내 일반 야영장 영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건의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도 했다. 군은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찾아 업종별 규제 애로 설문 조사

서를 발송하는 등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해 군민 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 오룡지구에 고교·공공도서관 설립”

김대중 전남교육감-김산 무안군수 협력 약속

전남교육청이 무안 오룡지구에 가칭 '오룡고등학교' 설립과 무안공공도서관 이설을 추진한다. 전남도교육청은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지난 20일 김산 무안군수를 면담하고 오룡지구 내 교육 관련 주요 현안인 오룡고등학교 설립과 무안공공도서관 이설에 대해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오룡지구는 9826세대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학생 유입이 예상된다”며 “고등학교 신설과 공공도서관 이설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예정된 정기 4

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안전으로 오룡고 신설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문화활동과 창의·예술 활동이 가능한 교육문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무안공공도서관 이설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산 무안군수는 “오룡지구 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고등학교 신설과 스마트, 어린이, 영어도서관 등 다양한 기능이 수반된 도서관 설립이 필요하다”며 “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지금 신안 병풍도는 맨드라미가 지천

다음달 1~10일 축제

섬 속의 섬 신안군 병풍도가 형형색색 맨드라미꽃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신안군은 맨드라미꽃이 가장 아름다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섬 맨드라미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병풍도 맨드라미공원은 11ha에 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맨드라미 꽃단지 조성돼 있다. 어릴 적 흔히 보았던 닭벼슬 모양부터 촛불 모양, 여우꼬리 모양 등 다양한 형형색색의 맨드라

미를 볼 수 있다. 축제 기간 이색 이벤트로 '바람 속 힐링의 붉은 연날리기', 순례자의 섬 및 맨드라미 사진 전시, 붉은 드레스 코드를 찾아라 등을 운영한다. 군은 '붉은 드레스 코드를 찾아라' 이벤트에 참여한 관광객에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하늘과 바다와 꽃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적을 이루어내고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감동을 주는 힐링의 정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무안사랑상품권 발행액 1000억 돌파

무안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무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무안사랑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1286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1000억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이 예상됐으나 10% 특별할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름 휴가철 등으로 월 90억 원 이상 판매가 늘어난 데 이어 추석명절 동안에도 55억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누적 발행액이 1066억에 달하면서 남은 한도가 곧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군

은 상품권 220억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현재 무안군은 도내 지자체 군 단위 자치단체 중 2번째로 많은 발행·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10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6~10% 할인 판매를 시행해왔으며 지류상품권 가맹점 3708개소,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3123개소를 등록하는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증대를 돕기 위해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전시·체험장 변신

옛 호남은행 목포지점 내일 오픈식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이하 대중음악의 전당)을 개관한다. 목포시는 23일 옛 호남은행 목포지점 (이하 호남은행)에서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오픈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중음악의 전당은 옛 호남은행 건물을 활용했다. 호남은행은 개항 이후 목포에 유일하게 남은 근대 금융 건축물이자 한국인이 설립하고 운영한

민족은행으로 건축사적 가치와 역사적 상징성이 매우 높다. 1층은 근대 건축 구조를 살린 열린 공간으로 호남은행의 역사와 근대역사문화공간을 홍보하는 방문객 안내 플랫폼을 운영하고, '5G 근대 VR 체험관'도 설치했다. 2층은 목포에서 발전한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과 이남영 등 대중음악 가수의 기획전을 선보인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